



지재처, K-브랜드 보호 주치의 「지식재산 분쟁닥터」 본격 시동

- K-브랜드 수출 기업 대상, 현장에서 맞춤형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실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IP)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재처는 1. 23.(금)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 현장부스를 설치해, 참여 기업들 대상으로 K-브랜드 분쟁 예방 및 위조상품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그동안 지재처가 실시한 현장목소리(VOC*)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예정)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 업종별 협·단체,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자 의견수렴 진행('25년도 총 38회)

지재처는 기업들의 해외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IP분쟁닥터」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되며, 해외 박람회 참가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국가, 주요 제품군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 할 예정이다.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의 주요 유형과 최신 유통 동향,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대응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시 별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단과 사업지원을 통한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과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IP분쟁닥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일남 (042-481-1502)
		담당자	서기관	김지훈 (042-481-3590)
			주무관	하윤정 (042-481-8280)